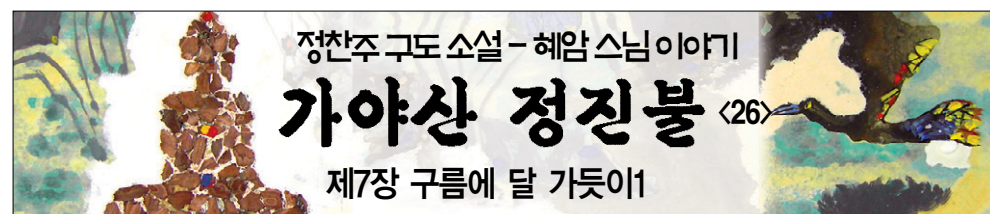


# 어디를 가든 암자가 되고 법당이 되어 정진하라



성철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는 2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49년 가을로 접어들어 회양산에 좌의 게릴라, 즉 공비들이 나타났다. 6.25전쟁이 나기 9개월 전이었다. 북한은 이미 남한에 거주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하여 암암리에 공산주의 혁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봉암사 대중은 가을걷이 율령을 하고 각자 용추동전 계곡으로 나가 몸을 씻었다. 계곡물은 벌써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다. 때 이른 단풍잎이 계곡물을 타고 떠내려가기도 했다. 헤엄은 붉은 단풍잎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찬 계곡물을 두 손으로 훔쳤다. 화두를 바짝 들고 정진하지 않으면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말 것이라 자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회양산 산중에 숨어 있던 공비가 봉암사 선방까지 나타난 것은 추석이 지나서였다. 봉암사 대중에 저녁예불을 마치고 선방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였다. 총을 멘 공비 한 명이 구두를 신은 채 들어와 대중에 겁을 주듯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대중들이 놀라 웅성거리자 공비가 "대사 선생님을 놀라지 마시오" 하고 안심을 시켰다. 식견이 좀 있어 보이는

는데 큰방에 들어온 총 든 사람이 말했지요. 그러니까 지대방만 안 뒤지고 쓸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갔지요. 공비 중에는 여자도 있었어요. 심하게 기운 누더기를 입고 종 옆에 서 있는데, 동굴에서만 살아 햇볕을 보지 못해선지 얼굴이 백지장 같았어요.

보경은 청담이 총 든 공비대장을 설득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마을 이장이 공비가 나타났다고 지서에 신고를 한 뒤, 보경에게도 귀뜸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보경은 지

세하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도 인곡은 해인사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몇 명의 수좌들과 함께 퇴설당에서 정진을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스님, 봉암사 대중이 모두 각자 알아서 떠나기로 하여 저는 해인사로 왔습니다."

"성철스님은 어디로 가셨고?"

"김병용 거사한테 기증받은 장경을 가지고 저보다 먼저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황곡스님이 계시는 월내 묘관음사로 가셨을 겁니다."

"공비들이 장경도 훔치 못할 줄 알고 지고 갈 수 있으니 그랬을 것이다."

"봉암사 결사가 유야무야 된 것이 아쉽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열매가 있을 것이다. 봉암사 결사에 동참한 스님들이 봉암사가 아니라도 각자 정진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가 있는 자리가 봉암사라고 생각하고 정진하거라."

유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해인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장경각에 대장경도 있고,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데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나는 해인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깨달음이 급하니 잠시 어디론가 떠나 공부할 하고 있거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중이니 목숨을 잘 보존하여 출가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스님 옆에 있겠습니다."

"범어사가 가장 안전한 것이다. 더구나 범어사는 동산스님 회상이니 공부하기에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스님을 누가 시봉합니까?"

"내 손발이 아직 멀쩡한데 시봉을 받지 않으면 어찌나"

"가지 않겠습니다. 제 공부하는 누가 점검해 주니까."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누나. 나는 너를 더

只此一段事  
古今傳與授  
無頭亦無尾  
分身千百億

헤엄은 계승의 의미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 한 가지 일이 천백의 화신으로 나뉜다는 구절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헤엄은 일어나 삼배를 올렸다. 그러자 인곡이 자애롭게 말했다.

"너에게 헤엄당(德庵堂)이란 법호(法號)를 내리겠다."

"스님, 길을 가리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림은 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네 스스로 어디를 가든 암자가 되고 법당이 되어 정진하라. 법호를 준 뜻을 잊지 말라."

그때도 헤엄은 차마 인곡의 곁을 바로 떠나지 못했다. 밤이 되면 공비들의 출몰이 더욱 잦았지만 헤엄은 퇴설당을 드나들며 정진했다.

"일전에 내가 목숨을 보존하여 뜻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해인사도 안전하지 않으니 어서 떠나거라."

"스님을 누가 모시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잘 시봉하는 것보다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 걱정 말고 떠나라는 것이다."

결국 헤엄은 더 버티지 못했다. 산내 암자들이 먼저 비워지더니 퇴설당마저 방문을 닫았던 것이다. 산내 암자의 스님들은 경찰들의 지시를 받아 강제로 떠났고, 퇴설당은 수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 둘 떠났다. 퇴설당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한 수좌가 눈물을 흘리며 바람을 쐐겼다. 헤엄은 그 수좌를 좋아했던 터라 마음이 착잡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전쟁 중이라 어디든 반겨 줄 곳이 없을 것 같소. 궁한 살림에 입을 하나 보태기도 미안한 노릇이고, 그렇다고 선방 말고 수좌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겠소."

"범어사 동산 스님 회상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은사스님 말씀도 그 곳만은 전쟁 중이지만 선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으로 갈 생각입니다."

"나도 그 얘기는 들었소. 스님들도 그곳으로 피난을 가 '피난민선방'이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헤엄은 저녁예불을 마치고 그 수좌를 흥류동까지 걸어가면서 배웅했다. 전쟁은 수행의 요람인 총림까지도 해산해 하여 수좌들을 불청객으로 만들고 있었다. 공비들에게 노출되어 위험한데도 발길을 떠나는 그 수좌의 마음을 헤엄은 잘 알고 있었다. 수좌는 저녁예불 때까지 좌복에 앉아 있다가 퇴설당을 나왔던 것이다.

"스님,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중생들이 저지른 불장난이라 그 죄업이 클 것입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흥류동 산길이 어두워졌다. 흥류동 계곡의 바위에 부딪치는 물소리만이 포렷했다.

"헤엄수좌, 어서 절로 돌아가시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해요."

"스님, 건강하시고 부디 성불하십시오."

"헤엄수좌도 견성 성불하십시오."

헤엄과 수좌가 서로 합장하자 마침 구름 속에서 달이 나왔다. 수좌의 온화한 얼굴에 달빛이 그윽했다. 헤엄은 수좌의 뒷모습이 산모퉁이의 낙랑장승에 가려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배웅했다. 수좌는 마치 구름에 달 가듯 표표히 사라지고 있었다.

<계속>



그림 · 최문정

## 찾은 공비 출몰에도 헤엄 스님은 계속 정진 인곡 스님에게 법호 받아

공비대장이었다.

공비들은 봉암사뿐만 아니라 부근 마을까지 내리막 양식을 강탈해 갔다. 당연히 마을 이장은 지서에 신고했고, 경찰들은 낮에 올라와 조사하고 내려갔다. 신고를 눈치 챈 공비들이 며칠 후 보복을 하러 다시 봉암사로 들어닥쳤다.

당시 긴박한 상황을 법전스님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술회한 적이 있다.

"노장님(성철스님)이 머리 나간인 상황에서 청담스님 하고 우리 대중은 평소대로 관음 정근(精勤)을 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 공비들이 나타났어요. 아직 6.25가 나기 전이었지요. 공비들은 절 뒤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가 저녁예불 하고 난 후 큰방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구두 신은 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거기 앉으라고 하니가 좋다고 앉기도 했어요. 공비들은 꼭 우리에게 대사 선생님이라고 했지 나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방에는 현병 하다가 중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스님이 부들부들 떠는데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어요. 다행히 그 스님을 공비가 못 봤어요. 공비가 잡으려 온 스님은 당시 원주를 보면 보경스님이었어요. 산내 공비들이 있다고 보경스님이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경스님을 지목해 묶어서 절 옆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지요." 공비들은 양식뿐만 아니라 살림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뒤졌다. 공양간의 양식을 싹 싹 훔쳐서 가져갔다.

"꽃감 깎은 것 하며, 소 한 마리 판 돈 하며, 독에 남은 쌀까지 다 털었어요. 나중에는 지대방 털려고 하

서에 공비 출현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봉암사 대중은 봉암사를 각자 떠나기로 했다. 공비들이 밤마다 출몰하므로 불안했고, 그보다는 양식을 강탈당하여 더 이상 봉암사에서 정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헤엄도 가을에 봉암사를 떠나 해인사로 돌아와 버렸다.

헤엄은 봉암사 결사가 2년 만에 와해된 것을 두고 몹시 아쉬워했다. 김룡사 금전대에서 용맹 정진한 한 철과, 계를 받기 위해 봉암사를 두 번 출타했을 뿐 철저하게 결사에 동참하여 정진했던 것이다. 29세 때 상월(霜月)스님에게 비구계를 받기 위해 해인사로 갔을 때와 30세 때 동산(東山)스님에게 보살계를 받기 위해 범어사로 갔다가 돌아왔던 것이다.

헤엄이 도착했을 때 해인사 분위기도 뒤숭숭했다. 봉암사에 공비가 출몰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져 있었다. 헤엄은 은사 인곡을 찾아가 인사를 드린 후 자

헤엄은 인곡의 당부대로 퇴설당에서 정진을 계속했다.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퇴설당을 봉암사 선방으로 여기며 정진했다. 지난해 가을 봉암사에서 온 이후 인곡을 모시고 몇몇 수좌와 함께 퇴설당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해인사에도 공비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가야산 깊은 산속에 숨어 있던 공비들이 야심한 밤에 왔다가는 사라지곤 했다. 낮 시간에는 군인과 경찰들이 경계를 서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밤 동안은 공비들의 세상이 됐다.

다음해 이른 봄이 되자 해인사는 저절로 텅 비워졌다. 예불에 나오는 스님들의 숫자도 서너 명에 불과했다. 경내는 태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아갔다. 언제든 군인과 공비들 간에 전투가 치러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이윽고 가야산에 신록이 무심하게 퍼져갈 무렵 인곡이 헤엄을 불렀다. 헤엄에게 해인사를 떠나도록 권

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 떠나라는 것이다."

"스님께서 언제 저를 점검하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봉암사에서 온 이후 나와 함께 정진하지 않았느냐?"

"김룡사 금전대에서 왔을 때 저를 점검하셨을 뿐 그 이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고지식한 놈, 네가 어떻게 정진하는지 다 지켜보았던 말이다. 그것을 점검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하겠느냐?"

헤엄은 더 이상 인곡의 당부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자 인곡이 계승을 한 수 읊조렸다.

다만 한 가지 일을  
고금에 전해주니  
머리도 꼬리도 없되  
천백의 화신으로 나뉜다.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헤엄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시므로써 생사가 돌 아닌 돌리 속에서 열반정적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 15) ~ 8월 15일(음 6. 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8월 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 1) 3시 ~ 29일(음 6. 8) 3시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절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태도를 매우 화려  
몸을 비어 매우 화려  
영가나 나타내도 수치를 만지거나  
몸을 나타내도 그대가 도리어  
이로서 교향으로 돌아가네 되네  
- 헤엄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정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